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5일간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시편 탄원시를 읽으며 나라를 위하여 합심기도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아 교회에서는 4월 5일(월)부터 4월 9일(금)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모여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담임목사는 이번 기도회 기간 동안 시편 가운데에서 특별히 민족 탄원시라고 불러지는 대표적인 다섯 편(74, 80, 83, 85, 89편)을 골라 하루에 한 장씩 강해하며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종교의 혼란한 현실과 비교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도록 격려했다. 5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의미있는 고난주간을 맞이했다. 또한 당회원과 교역자,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과 권찰, 권사회, 안수집사회에서는 월요일부터 하루씩 특송을 맡아 주었으며, 예배부의 안내와 주차 안내부, 그리고 봉사부는 각각 숨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섬겨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진설명: 메가박스에서의 담임목사

4월 4일(주일) 자원봉사연결팀은 1층 로비에서 3부예배 후까지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티켓을 성황리에 판매하여 목요일 삼성동 코엑스지점 메가박스 3관은 매진이 되었고 오늘(11일) 4시 을지로 중앙시네마 티켓은 아직 좌석이 남아 있다. 4부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에게는 목요일 티켓이 주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오늘도 1층로비에서 잔여석 티켓을 선착순 판매할 예정이다.

부활주일인 오늘도 을지로2가 중앙시네마에서 두번째 영화함께보기 행사가 진행된다. 메가박스에서처럼 상영 전 5분 광고시간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티켓판매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거룩한 성도가 모인 그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코엑스영화관 담임 메시지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지난 4월 8일(목) 우리교회에서 1차적으로 삼성동 코엑스몰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 3관 전체를 빌려서 “패션 오브 크리스트”를 관람했다. 영화가 상영되기 전, 오후 7시 15분부터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를 함께 부르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했다. 문동학 담임목사는 “거룩한 성도가 모인 그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영화관에서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고난을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다. 영

화관에서 함께 찬송을 불렀다는 것과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문화전장을 치르고 있는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들어오던 교인들과 영화관에서 구역식구를 만난 기쁨에 악수하며 함께 영화를 보던 성도들의 모습은 영화상영이 끝났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문을 나서게 되었다. 영화상영이 끝났을 때 어느 누구도 옆 사람과 크게 이야기 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울다 지쳐 눈이 부

은 성도들과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조용히 극장을 빠져 나올 뿐이었다. ‘십자가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것이었구나!’라는 생각과 ‘왜? 누구때문에?’라는 질문만 가슴속에 담고 극장을 빠져 나왔다. 영화관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경험했던 성도들은 이제 함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할 동일한 증인이 된 것이다. 주님의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은혜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대할 때 마음으로

중보기도모임이 4월 6일(화) 10시부터 준비되었다. 팀장 및 10명은 정영환 목사와 만나 찬

청년부 뮤지컬 공연

부활주일 오늘 4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4부예배는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다. ‘찾으라 그리고 돌아오라’라는 주제로 된 뮤지컬이다. 이 청년부 뮤지컬팀 이름은 ‘뮤지컬 J’. 출연진은 청년부 뮤지컬팀 멤버로 김정희, 김선령, 김원준, 최아름, 이주희, 박준식, 서현욱, 박민영, 문소원 총 9명이다. 청년부 위십팀과 중창팀은 2003년부터 결성되어 몇 번의 공연을 해왔지만 뮤지컬팀은 올해 결성되고 최초의 뮤지컬 공연을 시도하게 된다. 이번 뮤지컬 공연을 알리고자 3부예배 후 로비에서 팀원들이 몸소 돌아다니며 팜플렛을 돌리기도 하고 4부 예배 후 맛보기공연도 잠깐 가졌는데 특별한 의상, 춤, 노래가 함께 어우러져 더욱 많은 은혜를 끼쳤다.



성금요일 음악예배

살롬, ‘고난의 찬송’ 불러

3부 예배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살롬 찬양대는 지난 4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성금요일 음악예배를 드렸다.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주제에 맞게 살롬찬양대는 “고난의 찬송”을 불렀다.

David H. Williams의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Vickie Garrison의 ‘사랑의 십자가’, Joseph Marin의 ‘한 믿음 가지고’ 등을 합창했다. 또한 많이 알려져 있는 Adams의 ‘거룩한 성’과 Franck의 ‘생명의 양식’을 소프라노 김수진의 독창으로, 그리고 G. Grape의 ‘내 주의 보혈’과 A. Crouch의 ‘샘물과 같은 보혈’을 트럼본 독주로 찬양했다. 특별히 이번 “고난의 찬송”을 위해 부천시향 수석을 역임하고 단국대 기악과장으로 있는 김정환 교수가 트럼본으로 함께 찬양을 드렸다.

난곡공부방 결식

아동에게 주방시설지원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작은 손을 빌려서 아름다운 일을 완성 하셨다. 지난 2월 29일 난곡공부방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는 결식아동들을 위해 주방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덕영 목사, 성백술 장로, 한정웅 팀장을 비롯한 119 사역팀 8명은 4월 7일 오후 3시 지하철 신림역에 모였다. 잠시 후 방에서 공부하던 저학년 아동들은 우리 일행 앞에 나와 감사의 인사를 했는데 그 중 동네 교회에 다니는 5학년 아동 4명이 감사의 위십 울동으로 우리 일행을 감동 시켰다. 이번 수리 공사를 총괄적으로 지휘한 난곡 소재 유신교회 윤용진 장로는 경제사정 등으로 파탄 나는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동들을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 사회의 구석까지 빠르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교회가 있음에 같은 교인으로 긍지를 느낀다고 했다.



암수술 성도의 병상고백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특권을 누려요.”

위암수술 후 재활하여 다시 지난 해 암수술을 받은 김해련집사(38세, 4-3구역)가 지난 화요일(4/6)에 다시 삼성의료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장이 막힌 것이 한 달 이상 계속되어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서다. 평소 기도하는 구역식구들과 가족들은 김해련 집사의 완쾌를 위해 간절히 히스기야의 ‘협상기도’를 해오던 차, 오히려 위로하러 갔다 집사님 안에 임한 하나님의 평강과 샘솟은 감사와 기쁨을 보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김집사는 몸무게가 40킬로그램도 안되는 상황이다 1월부터 먹는 것마다 설사증세가 일어나더니만, 한 달 전부터는 아예 장이 막혀 버려서 먹는 것 심지어 물까지도 토하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웃에 사는 한 집사가 정성스레 만들어오신 전복죽만 소화가 된다고 한다. 아픈 엄마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딸 예진(6세)과 예린(5세)는 건강하고 밝게 적응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늘 옆에 있으며 “살아 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하다”는 김영관집사도 잠 못 이루는 상황에서 직장일과 간호를 해오고 있다. 김해련집

사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특권을 누려요”라고 말한다. 믿어지지 않는 고백이다. 5분마다 계속되는 통증, 먹는 것마다 토하여, 4달가량 제대로 음식섭취를 못하시고, 최근 한 달에는 금식하시피하신 집사님이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구토증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한번도 끊어지지 않았다. 비로소 집사님의 평강과 기쁨이 주님께서 주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딸 다섯에 막내인 김해련집사의 큰 언니(온누리교회 권사)는 “오히려 간 호하면서 감사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평강과 영혼의 기쁨이 흘러넘쳐 다시금 마른 뼈와 같은 육신이 회복하고 온 뼈와 세포가 소생하게 하소서” 집사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마다 위로하러 갔지만 집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한다.



청년부 수련회

강화도에서의 한국교회 탐방

청년2부(담당: 윤은성 목사)는 4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강화도 및 주문도로 MT를 다녀왔다. 청년부의 친밀한 교제와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목적으로 한 이번 MT는 담당목사의 인솔로 약 30여명의 청년부원이 참여하였다. 기독교 역사의 현장인 강화도 온수리 교회(성공회)와 주문도에 위치한 서도중앙교회를 탐방한 이들은 한국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비록 짧은 1박 2일간의 일정이었지만 이들은 강화도의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청년부간의 교제를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돌아왔다.

“한 명이라도 대학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지원집사가 난곡공부방을 위하여 디지털피아노를 기증하여 결식아동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 피아노 교사로 봉사자들을 찾고 있다. 최보경원장은 “13년간 공부방을 섬겨왔는데, 아직 한 명도 대학에 가지 못하고, 가난이 대물림 되고 결혼가정이 대물림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나오고 후에 이 공부방의 후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소박하지만 강한 소망을 밝혔다. 피아노기증과 피아노 레슨이 공부방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데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손에 손을 잡고 기도로 시작하는 앙코르합창단

지난 주일(4월4일) 오후1시30분 5층 찬양 연습실에서 앙코르합창단이 올 봄을 맞은 첫 연습을 시작하였다. 지휘자가 간단한 인사와 소식을 전한 후 다 같이 가까이 모여 앞 뒤로 손에 손을 잡고 시작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앙코르합창단은 2003년 4월27일 제1남선교회 회원을 주축으로 '실버합창단'이란 이름으로 창단되었으며 다시 '앙코르합창단'으로 개명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다.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온 편지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들 모두 즐거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제2여선교회 회원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찌 그리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답사를 오실 때부터 느껴지는 정감이 남 달랐습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이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해 드린 것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신 것을 보고 너무나 반듯하고 정갈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 오셨는데도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들을 아주 편안하게 모셔주셔서 모두 즐거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들어본 연주도 흥미 있는 일이었지요.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달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4. 3.12 루디아의 집 원장 서천석 드림.

※루디아의 집은 서울 마천동의 시각장애 할머니 수용 시설로써, 제2여선교회가 1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간단한 운동과 말벗과 목욕봉사로 섬기고 있다.

7포병여단 교회 위문예배

할렐루야 찬양팀, 해바라기를 통한 은혜의 시간

주님의교회 군부대교회사역부는 지난 주 4월 4일(일) 오후에 덕소 인근에 소재한 7포병여단 내의 승전교회를 방문했다. 이곳은 주님의교회 교우 김종걸 집사가 병기장교로 근무하는 곳이다. 이번 방문은 주님의교회에서 군인교회에 필요한 빔프로젝트(1대)를 기증한 것을 계기로 군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더불어 가진 것이다. 이번 일정을 위해 군부대교회사역부(부장: 임현표 안수집사)와 수요예배를 섬기는 할렐루야찬양팀(대장: 이동희 집사), 초청공연가수로 주님의교회에 몸담고 있는 해바라기가 아름답게 동역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저녁집회는 할렐루야찬양팀을 통한 은혜로운 찬양과, 위로와 도전을 준 우동윤 목사의 설교, 가수 해바라기의 따사로운 봄별같은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250여명의 장병과 군인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즐거움이 교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한편, 군무를 비롯한 여러 군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젊은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어장으로서 군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매주목요일 상담소 그룹모임 이어져

전화상담부는 자원봉사 신청자를 중심으로 4월과 5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10회에 걸쳐 소그룹 모임을 하고있다. 상담부 윤덕영 목사가 『전화카운셀링』(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를 교재로 사용하여 인도하고 있다. 이번 소그룹 모임 내용은 돌봄과 직면, 합리화와 저항의 역동성을 활용하여 성장에 이르는 길, 경청의 기법, 축어록 작성법, 가계도를 통한 자기 분석 등을 다루게 된다. 오늘 모임을

마치며 정영숙집사(부장)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상담자의 전인건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교육차원이 아니라, 부원들의 소그룹이 형성되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했다.

유아부의 종려주일

지난주일(4월4일) 유아부 주일 예배시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성극을 가졌다. 유아부 어린이들은 연극을 진행한 예배 진행팀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연기에 맞춰 반별로 미리 준비한 초록색 종려나무가지를 높이 높

이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다. 모두 함께 성서 속 이야기를 직접 경험해보고 어린나귀 타고 오신 겸손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5월 2일, 고등부 바자회

고등부는 5월 2일 교회 마당에서 징검다리 바자회를 개최한다. 징검다리운동은 2002년부터 고등부에서 실시해 오는데 '그리스도인의 경제실천 운동'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 아닌 이웃을 위해 내 것을 의식적으로 나누는 실천운동이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각자가 나름대로의 원칙을 자유롭게 가지고 자신의 것의 일부를 나누고 있다. 친구와 영화 볼 때, 이동통신 카드 할인 금액을 모아온 친구, 남자친구와의 100일을 기념하여 친구들로부터 받은 100원짜리 동전을 모아온 친구, 헌혈 증서를 가지고 온 친구, 버스를 탈 때마다 10원씩 따로 저축한 것을 가지고 온 친구 등 다양하고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공동체의 사랑을 꽃피우고 있다. 2002년부터 모아온 금액

은 이 천여만원에 이르고 그렇게 모여진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징검다리운동은 연2회의 바자회를 개최하고 그 수익금 전액 역시 징검다리 운동에 보태어지고 있다. 이번 5월 2일에 열리는 징검다리바자회 역시 이러한 소망과 기대 속에 열리게 된다.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교회 마당에서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기증한 물품과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며, 이것을 통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5월의 꽃을 피워낼 것이다.



오병이어의 작은 달란트들을 모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

중등부, 강남병원 환자들에게 달걀을 나눔 예정

중등부에서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동영상과 함께 설교를 듣고 종려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 많은 친구들이 아주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하며 묵상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로 중등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들을 친구들 앞과 하나님 앞에 발표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신들이 정성

껏 포장하고 장식하여 가져온 달걀을 친구들과 나누고 또 가까운 곳에 있는 강남병원 환자들에게 달걀을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한 중등부는 지난번 정신여중 1학년 성경 시간을 통해 중등부와 신앙을 소개하여 중등부로 10여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중등부에 등록한데 이어 이번주에는 정신여중 3학년 성경 시간을 통해 중등부와 신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는 중등

부 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부의 집사들도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었다.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의일 전도사는 4월 6일 정신여중 아침 채플 시간에 "내가 같길"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설교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생명과 구원과 참 소망의 길임을 증거했다. 다음 기회에는 정신여중 2학년 성경 시간을 통해 중등부와 신앙을 계속 소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 그러나 하나의 예배 통합아동부의 예배 고민

통합아동부(레인보우)는 3월부터 주일 아침 9시 30분에 초등학교 1~6학년까지 통합으로 유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들을 위하여 새로운 예배형식을 시도하고 있다. 모든 학년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순서에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고심하고 있다. 신나는 율동과 게임으로 시작하는 다음 말씀전달 순서가 이어진다. 말씀 전달도 다양한 연극을 통하여 보게 하고 때로는 같이 연극에 동참 후 feedback을 나누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계속 되어질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듣고 보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보는 훈련을 위함이다. 이번 부활주 일에는 말씀을 스스로 읽고 난 후 자신의 생각을 적고 이어서 박스를 꾸며서 만든 무덤에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여 부활을 체험케 하도록 준비한다. 그 후 계란도 그 자리에서 꾸며보며 선생님들과 feedback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져 부활의 즐거움을 나누어 보려한다. 선생님들은 매주 수요일 모여 주일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수난"을 보고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늘 기계적으로 입술을 움직여대던 사도신경의 한 부분이 한획마다 가슴에 꽂히는 날이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얼마나 메마른 입술로 읊어대던 말인가 말이다.

옛날 임금의 밤은 쌀알을 일일이 창호지에서 골라가며 온전한 쌀알만으로 밥을 지었다고 했다.

기름 흐르듯 우리는 말한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인간의 임금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런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어떤 노력을 하였었는지 묻게 된다.

예수의 피값으로 살고 있는 나
예수의 피값으로 커가는
이 교회, 이 나라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 많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엎드려야 할 때가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2교구의 어느성도

14일 저녁, 청소년 사역 공개강좌 강사 탱크목사 흥민기



오는 14일(수) 수요일성경공부 시간에 비전팀에서 흥민기 목사(강남교회, 브릿지 임팩트 대표)를 초청하여 청소년 사역에 대해 듣기로 했다.

그동안 비전팀에서는 자체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인 청소년사역에 대해서 논의해왔는데, 그동안의 논의를 심화하고, 온 교인이 공감하는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비전팀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수요일 또는 주일 오후에 초청하여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강남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흥목사는 미국 고든대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공부하였고, 브릿지 임팩트 사역을 통해 탱크목사로 잘 알려져 있다. "청소년을

훈련하여 하나님나라의 일꾼으로 삼고, 특별히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2세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의 다리가 되어 큰 임팩트를 만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탱크목사 중고등부혁명>, <교사의 힘> (규장출판사)이 있다. 브릿지 임팩트 사역은 1. Youth and Jesus (청소년과 예수님 사이의 다리가 된다.), 2. Youth and Youth Worker (청소년과 청소년 사역자 사이의 다리가 된다.), 3. Youth and Family (청소년과 부모, 가족 사이의 다리가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흥민기 목사가 미국에서 시작한 청소년 전문 사역기관이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를 위한 부모학교와 가정캠프, 청소년 사역자를 위한 사역 컨설팅과 교재 개발 등을 주요 사역으로 하고 있고, 2004년 한국에 첫 선을 보였다.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7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탱크 청소년사역자 학교"가 열릴 예정이다.

교통사고 지체 장애인, "하나님 보시고 계실줄 믿어"

다음은 구제부에서 후원하는 한 지체가 보내온 감사 편지이다.

"저는 1937년 1월 20일생 만 67세 남자입니다. 불행하게도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되어 저의 처와 6세의 손녀와 3세의 손자 네 식구가 살고 지냅니다. 고맙게도 주님의교회 문완홍 집사님이 제 집을 자주 방문해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은혜로운 기도예 용기를 잃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랑이 많은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교회 재정에 필요한 곳이 많을 터인데 남을 돕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야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바라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건강하심과 성도님들의 건강하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서 두서 없는 글을 이만 줄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거동이 불편한 교우들 먼저!

아래 사진은 2부예배가 끝난 후,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교우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한 층 내려가기 위해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문이 열려 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 휠체어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 갔다가 나온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일반인들이 계단을 이용한다면 몇 초내로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엘리베이터 이용은 말 그대로 '교통체증'이다. 예배직 전이나 직후에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위해 다른 교우들이 층계를 이용하도록 배려해야겠다.



1. 제 40여선교회 모임

이번 주 월요일(12일) 오전 11시에 5층 찬양 연습실에서 제 40여선교회(1954~1958년)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봄 메이크업에 대한 유익한 강의도 있을 예정이니 모든 회원들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 다음 주일은 나눔의 주일입니다

복지선교부에서는 현재 여러 군데에서 나눔의 물품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옷가지, 신발, 내의, 및 책이나 가전제품 등 쓸만한 물건들을 기증하여 주시면 요긴하게 필요한 곳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에게 광고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문의: 이충길집사, 011-736-9571

3. 친교테니스게임에 참여하세요

친교테니스게임은 지금부터 7년 전에 이루어진 주님의교회 친목을 위한 모임입니다. 약 10여명이 모여서 봉사활동에 협력적 도움도 되고자 모임이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여고 운동장 테니스 코트에서 해오다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관절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 생각되어 배제중고등학교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주일 오후 2시 30분에 하며 이번 4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배제중고등학교에서 새롭게 친교테니스게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님의교회 테니스모임으로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안에 친목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우동정

◆ 아프리카 알제리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오길

7교구 8구역의 이재익 집사는 (주)대우에 다니는데, 오는 4월 12일 아프리카 알제리로 근무하기 위해 출국한다. 새로운 곳으로 파견되는 이재익 집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며, 근무로 인해 가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가족은 아내인 임선주 집사와 딸 나리가 있다. 임선주 집사는 7교구 10구역에 임현표 안수집사, 김지자 권사의 장녀이다.

◆ 모철민 집사 가정 프랑스로 발령 3년간 체류

7교구 1구역 식구로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모철민 집사(김기영B 집사) 가족이 지난 3월 18일 파리로 출국했다. 문화관광부에서 근무하던 모집사가 이번에 프랑스 문화원장으로 발령받아 3년간 예정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동안 2부 예배 계수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신앙생활 성실하게 잘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하며, 나라를 위해 국위를 선양하고 맡은 임무 잘 감당하도록 교우들의 기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고등부, 고난주일 맞아

[그리스도의 수난] 단체 관람

고등부는 지난주일(4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중앙시네마로 이동, [그리스도의 수난]을 관람했다.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영화관이었음

세례식 안내

세례자격

1. 세례: 교회 다닌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으로서 본 교회 등록된 교인 (만15세 이상)
3. 입교: 유아세례 또는 영세 받은 분으로서 본 교회 등록된 교인 (만15세 이상)
4. 유아세례: 만2세 이하의 유아 (부모가 본 교회 등록교인이면서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부모 모두가 세례교인이어야 함, 자녀와 함께 교육참여해야 함

※ 1층 사무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기록하시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 교적이 확인되어야 참여할 수 있으니 소속교구, 구역을 확인하시고, 신청서의 주소란에 《주소》와 《교구》, 《구역》 및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년 세례·입교 ■

1. 문답 교육: 4월 25일, 5월 2일, 9일, 23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제3집회실 1층 (담당: 이호 목사)
2. 문답식: 5월 30일(주일) 오후 1시 30분, 2층 중교 수련실 (1층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받은 후, 교역자의 안내를 받아 문답식에 참여함)
3. 세례·입교식: 6월 2일 오후 7시 30분 (수요성경공부시) 중예배실(지하 1층)

■ 청소년 세례·입교 안내 ■

1. 문답 교육: 5월 23일, 30일, 6월 6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4층 교회학교 사무실 (담당: 김현령 전도사)
3. 문답식: 6월 1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4층 교회학교 사무실
4. 세례·입교식: 6월 20일, 오전 9시 30분 주일학교 예배시 (중등부: 소예배실, 고등부: 중예배실)

■ 유아세례 안내 ■

1. 유아세례 부모교육: 4월 18일(주일), 25일(주일) 오후 1:30 소예배실 (1층 로비 입구) (담당: 정희성 목사, 자녀들을 위한 탁아실이 별도 운영됩니다.)
2. 문답식: 5월 2일(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소예배실
3. 유아세례식: 5월 12일(수요일) 중예배실 (수요성경공부시)

※ 오후 7시까지 지하1층 중예배실 입구로 오셔서 교역자의 안내를 받아 명찰을 받고, 지정된 자리에서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유아세례식에는 부모가 다 참여하며, 사진촬영은 유아세례식이 끝난후 가능)

*유의 사항

통신교육은 없으며, 문답공부와 문답식에 전부 참여하여야 세례 입교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76명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참여한 큰 행사가 되었다. 반별로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을 이용해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제의 시간 역시 가질 수 있었다. 영화를 관람하고 난 후의 소감은 각각 달랐지만, 모두

에게 고난주간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영화 관람을 마치고 극장 로비에 모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마16:24)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였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정기 예배 (주중)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8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4.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10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5.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7.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